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품질 제일주의로

기술정보신뢰성과 행정사무관 이덕웅
(02)509-7232 dwlee@ats.go.kr



롯데전기사업사 김후곤 대표

흔히 기업들에게 통하는 일정한 고정적인 경영원칙의 왕도는 없다. 제조업, 특히 전기제품 제조업에서는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품질을 우선으로 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시대와 환경에 걸맞는 조직운영을 해야하며, 타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경영방식으로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여야 한다. 일관된 정책으로 품질 개선을 지상 최고의 정책으로 최고의 제품을 제조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경주되어야 한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 슈페터(Schumpeter)는 그의 하버드 대학 마지막 강의에서 "사람의 삶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서적이거나 이론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6세라는 약관의 나이에 최연소 교수가 되었고, 경제학에 관한 많은 저서를 썼고 강의도 많이 했지만 자신의 학문적 이론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심히 가슴아파 했다고 전한다.

"저희 롯데전기산업사는 1995년 6월에 설립하여 가정용소형변압기, 전압조정기, 공업용3상단권변압기, 멀티류, 전자식 네온변압기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4년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품질제일주의로 불량률 0% 달성이라는 목표로 우리 임직원의 결의를 다졌으며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IMF라는 큰 장벽에서 무수한 역경에 부딪혀 많은 애로와 고통을 헤치며 재도약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과 기간 동안에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는데 성공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하면서도 힘찬 김사장의 설명이다. 실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뼈를 깎는 아픔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주위의 소문이다.

멀티류는 일본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 그곳에 수출하고 있고 전기용품 안전인증, KS인증 등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보증인증을 모두 취득한 상태다.

"우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용자를 전기제품으로 인한 위해로부터 완벽한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제품 개발과 결함없는 정품을 생산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품질에 대한 김사장의 관심도 대단하다! 정직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사훈을 직접 지은 김사장은 이 방면에서 널리 베테랑으로 인정받고 있다.

“ 지금까지 저희는 치열한 자유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할이만큼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기필코 원가절감으로 타사와의 가격경쟁에서 승리하여 우선 순위로 시장점유율에서 우위를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품질에서도 업계를 선도하는 손색없는 최일급의 업체로 발돋움하고 완벽한 신제품 개발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충족하게 채우겠습니다.”



변압기(LT-2000D)

김사장의 뇌리에는 품질, 고객만족 그리고 수출이라는 생각이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살펴본다면 최단기간 동안 실용신안과 특허출원을 취득하여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했으며, 멀티튜를 일본에 수출하여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으로서 외화획득에 일조를 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순전히 우리의 기술로 제조한 멀티튜를 선진국이라고 하는 까다로운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를 느끼고 경영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은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았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유망중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미 완성했으며 전직원이 총체적으로 도약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외형적인 매출신장보다는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역점을 두고,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부합하는 차별화된 제품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변압기, 전압조정기 등의 국내 제조는 수요보다 과잉공급현상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각업체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출혈가격으로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롯데전기산업사는 10년만에 중상위군으로 도약하는 일대 기염을 토했으며, 소비자의 만족과 신뢰성을 받고 있는 견실한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 앞으로는 국내의 좁은 시장보다는 동구권 및 서남아 세계지역으로 과감하게 시장을 개척하여 판로를 다변화 할 계획입니다.”

수출에 대한 김사장의 집념은 대단하다. 수출단이 오직 살길이란 말일 것이다. 그의 힘있는 마지막 말을 들어본다.

“ ‘ 소비자 중심 품질제일주의의 경영방침으로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충족시킨다’ 이것이 금년도의 우리의 지상명령이며 한치도 후퇴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우수품질인증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품질혁신에 최선의 역량을 다하여 소비자를 위한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합니다.”

